

찬췌(殘雪)의 『오향거리(五香街)』에 나타난 공간의 양가성

김봉연*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서로 다른 진술이 빚어내는 혼란 또는 환희
3. 관찰과 감시의 폐쇄적 공간
4. 권력의 재편: 공간을 교란시키는 신체
5. 나오는 글

국문초록

문학작품 속에서 공간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물, 사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작가의 사유를 드러내는 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인물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담겨있다. 찬췌의 첫 장편소설 『오향거리(五香街)』는 인물과 공간이 맺는 양상에 대한 천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인 오향거리는 다양한 생각의 개진과 카니발의 환락이 일어나는 개방적이면서도, X여사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벌어지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는 생경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생득적 거부가 진행되는 한편 이질적인 존재가 풍기는 강한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는 양가적 성격으로 귀결된다. 『오향거리』는 한 공간이 가진 개방성과 폐쇄성의 다른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의미로만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의 다면성을 포착하면서 인물과 사건의 입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 숭실대학교 중문과 연구중점 조교수

키워드: 잔취, 오향거리, 공간, 개방성, 폐쇄성, 양가성

1. 들어가는 글

잔취(殘雪)는 1980년대 중후반 중국 문단에 유행했던 선봉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다. 문학에 지나치게 강요되었던 목적성과 예측성에 대한 염려와 염증은 문학의 최종적 방향을 ‘허구와 실험’으로 귀결시켰다. 문학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작가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선언 속에서 창작의 문법과 규칙들은 파괴되었고 작가의 현실 인식은 ‘허구’가 허용하는 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다. 마윈(馬原)은 「허구(虛構)」(1986)라는 소설로 당시 선봉소설의 지향점을 선언하였고 “나는 마윈이라는 한족이고 소설을 쓰고 있다”¹⁾라는 작품의 첫 문장은 기존 독서 습관에 대한 폐기와 함께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근 등단 40년을 맞은 위화(余華)와 신역사주의 소설로 문재(文才)를 꽃피웠던 쑤통(蘇童)은 등단 초기 선봉소설 창작의 전위를 담당했으며, 주로 인간 본성의 악함과 폭력, 부조리함을 들춰냈다. 또한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간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이성 이면에 가려졌던 감정의 영역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 조건으로서의 모순성을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완전한’ 인간형의 모습을 구현해야 했던 이전 시기의 문학적 피로도를 반증하고 있다.

1985년 단편소설 「더러운 물 위의 비눗방울(污水上的肥皂泡)」²⁾로 등단한 이래 잔취의 작품은 줄곧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구 모더니즘은 당시 중국 선봉소설의 지표이자 지향이었다는 점은 그녀의 작품이 시기 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선봉소설의 세례 속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³⁾ 인간과 사회의 복잡다단한 관계는 더 이상 세상을

1) “我就是那個叫馬原的漢人，我寫小說。”，『馬原文集』卷一，北京：作家出版社，1997，1쪽.

2) 1985년 『新創作』第1號

단일하고 명확한 시선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의 도래를 맞이하게 하였다. 선봉소설이 주목한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측면 그리고 부조리함은 감춰졌던 인간 실존의 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찬췌의 문학적 행보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현대 세계와 현실 사회생활의 본질을 몽환적으로 히스테릭하게 묘사”하면서 “전형적인 중국식이지만 중국 사회의 본질을 철저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성을”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중국과 중국인으로 제한되는 특수한 양상에 대한 천착이라기보다 인간 보편의 정서를 포착하는 것에 가깝다. 곧 인간 내면의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일상화된 행위로서의 엿보기 심리”⁵⁾를 통해 인간에게 내재된 부정할 수 없는 충동성과 공격성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는 작가가 겪었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매개되어있다.⁶⁾ 문혁이라는 미증유의 혼돈은 이성애 의해 은폐되었던 비이성을 들추어내었고, 인간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논리와 설득이 아닌 폭력과 파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이는 비단 중국 내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언제라도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감지된다. 요컨대 현실은 이성으로 제어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충동과 감정으로 가득하며 이는 인류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작가의 첫 장편소설인 『오향거리(五香街)』(2002)⁷⁾에서도 위와 같은 현실

3) 찬췌의 작품을 논한 국내 연구인 김경남의 「찬췌(殘雪)소설론」(『중국연구』 제33호, 2004), 손미령, 「殘雪의 모더니즘 소설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수민, 「잔설의 『황니가』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은 모두 이와 같은 논조를 가진다.

4) 김경남, 앞의 논문, 7쪽.

5) 김경남, 앞의 논문, 7쪽.

6) 김경남, 앞의 논문, 8쪽, 손미령, 석사논문, 13쪽, 常立霓, 「“看-被看”模式的消解-從「復仇」到『突圍表演』」, 『湖北大學學報』, 2005年 第32卷 第1期, 77쪽.

7) 본 논문에서는 『五香街』, 湖南文藝出版社, 2017년판을 저본으로 삼는다. 이 작품의 국

인식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X여사와 Q선생 사이의 외도를 추적하는 오향거리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준다. X여사와 Q선생의 나이와 외모, 직업, 가정, 성격, 생각 등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이 오가고, 이 의견은 작품 속 화자인 ‘작가’에 의해 보고서의 형식⁸⁾으로 하나하나 기록된다. 여기에 X여사와 Q선생이 외지인라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작품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오향거리 ‘내부’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벌이는 ‘추문’으로 정의되면서 X여사와 Q선생은 오향거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찍힌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찰은 감시로 이어지고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오향거리 사람들의 날선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주동하는 사람은 X여사가 마을에 오기 전까지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던 과부이다. 때문에 ‘작가’의 ‘보고서’는 권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낸 X여사와 Q선생에 대한 감시의 기록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질적 존재에 대한 거부를 적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고서 형식은 여성에게 가해진 신체와 성에 대한 억압을 피력하는 X여사의 언행을 통해 오향거리 사람들에게 내재된 전통적 인식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육체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은 부도덕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오향거리에서 그녀는 강연(말)과 공연(행동)으로 맞선다. 처음에 마을 여성들에게 X여사는 기이하게 남자를 유혹하는 음탕한 여자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가진 생각과 행동

내 번역본으로는 문현선 역, 『오향거리』(문학동네, 2022)가 있다. 이하 작품 인용 시,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8) 『오향거리』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故事前面的紹介)’와 ‘본격적인 이야기(故事)’로 나뉘어져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속한 소절은 다음과 같다. 1. X여사와 Q선생의 외모에 관해, 2. X여사의 직업에 관해, 3. X여사와 과부의 ‘성’에 대한 이견, 4. Q선생과 그의 가정, 5. 개조 실패, 6. X여사가 피상적으로 밝힌 남자에 대한 느낌. ‘본격적인 이야기’역시 1. ‘이야기의 발단에 관한 몇 가지 견해’로부터 11.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향거리 대로에서 내일로 나아가는 X여사’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담겨 있다. X여사와 Q선생의 외도에 대한 보고서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그들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낱알이 밝히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사실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오향거리는 X 여사의 강연에 과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동참하게 되는 ‘모두’의 공간이 된다.

문학작품 속에서 공간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물, 사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작가의 사유를 드러내는 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인물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담겨있다. 때문에 공간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비)물질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 변화하는 성질”⁹⁾을 가진다. 요컨대 공간성은 좌표를 가진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활동과 개입의 관계망으로 완성되며 이 안에는 사람들의 일상과 현실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축적과 변화의 활동이 전제되어 있다. 작가는 이런 공간의 특성에 은유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조화하고 “변용과 증첩 등 이중의 의미적 전략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표현한다.”¹⁰⁾ 따라서 공간성에 대한 인식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는 인식과 사유 전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작품의 제목을 ‘오향거리’로 변경¹¹⁾했다는 사실은 이 소설에서 오향거리가 이야기가 발생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오향거리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완성된다. 결과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에너지를 주목한다면, 인물과 공간이 맺는 양상에 대한 천착이 작품을 파악하는 요체가 될 수 있다. 인물들의 일상은 공간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감각, 곧 직접적 연루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오향거리는 여성들의 자기표현이라는 개방성과 함께 오향거리로 ‘들어온’

9) 박규택,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한국민족문화』 33호, 2009, 161쪽.

10) 이은하, 「『눈먼 자들의 도시』의 서사구조와 도시 공간성」, 『한국문예비평연구』 71호, 2021, 95쪽.

11) 이 작품의 원제목은 『포위망 돌과 공연(突圍表演)』(1990)으로, 2002년 작품의 제목을 『五香街』로 바꿨고, 바뀐 제목으로 2011년 作家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X여사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응시가 만들어내는 감시라는 양가적 성격으로 수렴된다.

본 글은 작품 속 오향거리라는 공간이 가지는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양가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진술 사이의 충돌이 반드시 갈등과 폭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질적인 것의 배격을 통해 균질함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X여사는 균질함을 유지하는 힘에 대항하고 오향거리라는 공간을 교란시키며 사람들의 고착된 사유구조에 균열을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상할 수 없는 X여사의 행동은 기이함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 이 일련의 과정은 공고한 중심을 파괴하고 한 곳으로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지향점 하나를 보여준다.

2. 서로 다른 진술이 빚어내는 혼란 또는 환희

『오향거리』는 X여사와 Q선생의 외도를 주된 사건으로 하지만, X여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펼쳐지는 상황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X여사의 실체는 모호하다. 그녀는 서사를 추동하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명쾌한 해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의혹도 풀어주지 않는다. 때문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X여사와 Q선생이 벌이는 사건은 소설의 표층에서 읽히는 얇은 외피가 되고, 이 외피를 벗겨내면 X여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여러 진술과 X여사 자신의 말이 어지럽게 섞이는 난장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이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향거리 사람들이 가진 상념의 어지러운 전개는 작품 속 서사의 빈 공간을 만들고 이를 유추해야 하는 불친절함을 야기한다.¹²⁾ 사람들은 X여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띤 토론을 벌이는 지점은 X여사의 나이이다.

X여사의 나이는 어느덧 우리 오향거리의 최대 미스터리가 되었다. 한편 집단의식에서 벗어나자마자 모두 자기 의견으로 되돌아가 견해가 스물 여덟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다. 누구도 남의 의견을 따지려 들지 않았다. 심지어 X여사의 38세 된 잘생긴 남편마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친구가 호적에 올라 있다고 그토록 강조한 35세가 아니라, 석탄공장 젊은이의 안목에 따라 아내의 나이를 22세라고 받아들였다.

(중략)

그 외에 일부러 혼란을 부추기는 인간들도 있었다. 그들은 X여사의 나이에 대한 기존의 스물여덟 가지 견해에서 벗어나 37.5세, 46.5세, 29.5세, 26.5세 등 0.5세를 붙인 나이를 주장하며 곳곳에서 경망스럽게 떠들어댔다. 결국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하고 철학적으로 변했다.¹³⁾

남편마저 아내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는 듯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사실로 여긴다. X여사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 논란은 종결되지만, 그녀 역시 알려줄 생각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X여사의 나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지려 들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주장에 대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한 각자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12) 중국 문단에서 1980년대 선봉소설이 형식과 내용의 실험으로 의도적인 독자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독자들의 독서습관을 허물고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확보하고자 했던 점에 비추다면, 선봉소설로 자리매김하는 이 소설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13) X女士年齡便成了我們這條街上一個最大的疑案。而一離開群體意識，大家又各執己見，將見解分裂爲二十八種以上。并誰也懶得追究誰了。就連X女士的丈夫，一位三十八歲的美男子，也莫名其妙地按照煤場小伙子的眼光，將妻子的年齡看作二十二歲，而不是其好友強調的，以及戶口簿上登記的三十五歲了。(……)另外還有幾個故意把水攪渾的家伙也在X的年齡上大做文章，到處有說，說法在已有的二十八種之外：一說三十七點五歲，一說四十六點五歲，一說二十九點五歲，一說二十六點五歲，似乎經他們弄出個零點五歲的差距來，事情就變得萬分深刻，充滿哲學了。『五香街』，5-6쪽，『오향거리』，14-15쪽.

은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명하지 않은 채 X여사를 재단하고 판단한다. 의견이 분분해질수록 X여사의 실체와는 멀어지고 혼란은 증폭된다. 작가는 이러한 분열과 혼란 중심에 매개된 이기심을 포착한다.

가만히 따져보면 석탄공장 젊은이는 21세나 23세가 아니라 꼭 집어서 22세가 말했고, 분명 같은 거리에 사는 사람을 두고 ‘혜후’같은 현학적 어휘를 구사했다. 틀림없이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사심이 있는 것이다.¹⁴⁾

각자가 가진 ‘사심’은 종종 특정 문제를 판단할 때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이득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향거리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X여사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못 여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Q선생과 간통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X여사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여성들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낸다. 사실 간통 역시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¹⁵⁾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력으로 가지고 오향거리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모든 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자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된다. 남자들에게 X여사는 아름다운 외모와 신비한 기운, 기이한 행동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폭발력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 오향거리 여자들에게 X여사의 외모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자신의 위치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과부는 X여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게 된다. 그녀는 “지체 높고 기품 있으며 출중한 여인”으로 오향거리에서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X여사의 등장과 함께 존재의 위협을 받는다.

14) 細究起來，煤場小伙子之所以偏偏說了個二十二歲，而不說二十一或二十三歲，明明是街坊，又故弄玄虛搞什麼，“邂逅”，必有其不可告人的私心。『五香街』，4쪽，『오향거리』，12쪽.

15) 작품은 두 사람의 외도에 대한 직접적 진술이나 구체적인 상황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때문에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오향거리 사람들의 감정과 추측으로 만들어진 소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정황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은 X여사의 나이에서 출발해 그녀와 Q선생의 관계에 대한 오향거리 사람들 각자의 의견을 보여준다. 상황은 그들에 의해 시시각각 공유되고 각기 다른 이야기로 변모한다. 작가는 이들의 주장에 정오포를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X여사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는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을 수도 틀릴 수 있는 애초에 정답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전개는 각자의 의견이 오가고 그에 대한 찬반이 전개되는 곳으로서 오향 거리가 모든 논의가 펼쳐지는 자유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야기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있는 X여사와 Q선생의 신변에서 시작해 그 둘의 간통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거쳐 과연 그 행위가 금기로 치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여성의 욕망에 가해진 사회적 금기와 억압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이는 X여사와 과부이다.

X여사가 오기 전까지 오향거리 남성들의 애정과 관심은 과부를 향하고 있었다. 이를 자신의 과시욕으로 삼고 못 여성들을 자신의 수하에 놓고 있었던 그녀에게 X여사의 등장은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된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¹⁶⁾은 X여사를 향한 엿보기와 감시로 바뀐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대립적인데, 그 가운데 성에 대한 이견은 서로가 대척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과부는 성의 목적이 남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사회풍도를 정화하며 여성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남성을 통제하는 한편, 여자 특유의 성감을 통제하여 남성과의 육체경험을 피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일생동안 남편하고만 육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미덕을 엄격하게 준수한 증인이라 말한다. 사실 과부는 육체관계만 피하고 있을 뿐,

16) 공포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감정이라면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이 모호할 때 생긴다. 작품 속 과부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X여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X여사가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오향거리 내 관심과 발언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공포와도 같은 느낌을 가진다. 때문에 X여사의 모호한 신분이 분명해진다고 해도 X여사는 여전히 과부에게 위협이 대상이 된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을 즐거움과 권력으로 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X여사는 과부의 이중성이 단지 그녀가 가진 특성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주입된 ‘전통 미덕’이라는 억압이 만들어낸 보편의 심리임을 간파한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변별능력과 경험의 제고이다.

우선 그녀는 자신에게 성이란 잠자리에 관련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잠자리야말로 이 일의 목적이자 절정이고 더할 나위 없이 미묘한 순간이며 이상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X여사는 그 일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숙하고 철저했다. 참깨처럼 작은 일도 그녀의 기분을 망가뜨려 흥분과 쾌감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다.¹⁷⁾

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두 사람에게 삶을 지탱하는 근원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의 수호자로 성을 엄격히 통제하고 성의 활동을 통해 사회풍토를 정화하자는 과부의 주장에 X여사는 통제보다 개인의 감정과 능력의 제고를 통한 관계에 집중하자고 맞선다. 두 사람의 상대적 견해는 작품을 이끄는 내력으로 기능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든다.

여기서 과부와 X여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식으로 서로 변론하고 부딪치며 개인의 자아의식을 극대화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연을 통해 교감이 만들어지고 모두의 환락과 환희가 넘쳐나는 나체공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¹⁸⁾ 억압된 성욕이 표출되면서 기존 권위 또한 신체의 현현을 막지 못

17) 首先她肯定，她的性觀念絕不是與上床毫無關係，而是密接相關的。上床是這件事的目的和高峯，是無比美妙的瞬間，簡直可以說是她的理想的實現。正因為如此，她在這件事上才嚴肅得有些過分，絕不馬虎，那怕一點芝麻大的小事也可能破壞她的整個情緒，於是馬上喪失了衝動和快感，變得索然無味，麻木不仁。『五香街』，67-68쪽，『오향거리』，89쪽.

18) 흥미로운 것은 과부와 X여사를 위시한 여성들의 발언이 개방된 공공의 장소인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남성들의 말은 주로 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남성의 축소화, 주변화, 음지화 대 여성의 확대화, 중심화, 양지화”(陳茜, 「性別文化視閥下 《五香街》的空間意象」, 『三明明學院學報』, 2018年 10月

한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은 개방성을 담보로 하고 불특정 다수를 청중으로 삼는다. 강연의 방식으로 진행되던 두 사람의 의견은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 공적인 공간으로 들어서고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변모되며 난장의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 이 과정은 오향거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감각하고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동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행위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와 타자의 관계는 권력 유무에 따라 불균형적이다. 관계 속 다른 기울기를 대하는 방식은 개방적인 오향거리를 관찰과 감시가 만연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3. 관찰과 감시의 폐쇄적 공간

오향거리는 대대손손 사람들이 거주하고 질서를 잡아온 곳으로 외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은 아니다. 나름의 체계 속에서 마을을 구성하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오향거리가 구축한 ‘개방과 수용’의 이면에는 개성과 다양함의 부재가 전제되어 있다.

오향거리의 대중 단체는 줄곧 다양한 사상과 개인을 잘 수용하는 조직이었으며, 이런 ‘수용’이란 희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한 점진적 동화, 완벽한 융화를 의미했다. 예로부터 이 방법은 늘 기대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번 X여사의 경우는 모든 규칙이 소용없었다.¹⁹⁾

第35卷 第5期, 59쪽)로 같음한다. 찬췌는 문학 속 여성의 자리는 “남성 권위주의가 가져온 우월감을 타파하는 것으로 실현된다”(殘雪, 『我的人生筆記』, 時代文藝出版社, 2007, 160쪽)라는 말로 남성들이 가졌던 권위의 해체가 여성의 자리를 되가져올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긴다. 『오향거리』에서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남성들의 발언이라는 양상으로 그들이 가진 말과 자리의 권위를 해체한다.

19) 五香街的群眾團體一貫就是一個善于容納多種思想觀念和個體的組織, 這種“容納”倒并不等于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가진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된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가진 고유성과 특수성이 발현되기에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름에 대한 인정 속에서 공동체가 가진 질서와 관습 역시 구성된다. X여사가 오기 전 오향거리가 줄곧 추구하고 있던 수용의 태도는 개인이 가진 개성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 오랜 기간의 교육과 교정을 통해 오향거리 내 질서와 관습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점진적 동화를 거쳐 완벽한 융화가 되면 오향거리 내 다른 구성원과 다름이 없어진다. 개성과 고유함의 부재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기저에는 ‘다른 것’에 대한 거부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 지켜졌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X여사의 존재는 동화를 거부하는 개인의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오향거리 내에서 그녀를 향한 거부의 기제가 발동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X여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자들을 홀리는 ‘요부’로 재단당하고 오향거리 내 질서와 체계를 위해 외지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요받는다. 여기에 X여사가 동화와 융화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오향거리 사람들은 그녀와 Q선생의 간통이 오향거리의 ‘순수성’을 파괴시킨다는 미명 아래 그들에 대한 관찰을 빙자한 감시를 진행한다. 사람들은 매일 밤 ‘검은 방’으로 지칭되는 밀실에 모여 자신이 하루 동안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덧붙여 X여사와 Q선생에 대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든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저마다의 말들이 오가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에 대한 말하는 이의 사적인 감정이 스며들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다. 회의의 방식이라 말하지만 정작 행위의 당사자인 X여사와 Q선생이 배제되고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사적 감정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토론은 두 사람을 향한 비난과 함께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오향거리 사람들의 집단

和稀泥，而是通過漫長的歲月使其逐漸同化，徹底與自己融為一體。自古以來，這種做法往往取得預定的可喜效果。但是這一次，輪到X女士的這一次，一切的規律都失靈了。『五香街』，75쪽，『오향거리』，98쪽。

이기심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변질된다.

이를 주동하는 사람 역시 과부이다. 그녀는 히스테릭한 인물²⁰)로 X여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녀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확인한다. X여사에 대한 과부의 집착과 강박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관심과 애정이 그녀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이 속에는 X여사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으며, 개인의 이익이라는 사심은 사악하게 상대방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을 선동하여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작가는 밀실 토론을 주동하는 과부의 사심 뿐만 아니라 X여사와 Q선생의 서사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새겨지는지를 알려주면서 확장된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들추어낸다.

암암리에 발생했던 남녀 간의 사적 교분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오향거리 사람들의 정신적 양식이 되었다. 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경시했지만 실은 밤마다 오매불망 그리워하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참여하곤 했다.²¹⁾

빼앗긴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과부의 사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X여사와 Q선생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타난다. 토론에 참여하는 목적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대중을 선동해 두 사람을 비난하면서 감시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했던 과부의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자신을 대체하는 관음의 쾌감으로 바뀐다. X여사와 Q선생을 오향거리의 ‘순수함’을 파괴하고 유구하게 지켜졌던 관습에 역행하는 자들이라 단정짓고, 그에 합당

20) 히스테리는 타자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보면서 결여에 대처하는 반면, 강박증은 본질상 불가능한 욕망을 꿈꾸며 자신의 자리를 욕망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228-229쪽) 과부는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이 X여사에게로 옮겨질 것을 두려워하고 질투한다. 자신의 욕망을 X여사에게 보면서 자신에게서 결여되고 있는 권력에 대처한다.

21) 這一段暗地里發生的男女私情曾在很長一段時間里成爲我們五香街百姓的精神食糧，我們表面不承認，而且鄙薄，其實誰都是一夜夜魂牽夢縈的，還在設想中自己也充一主角參加進去。『五香街』，171쪽，『오향거리』，214쪽.

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그들의 밀실 토론은 각자의 호기심과 관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는 행위로 탈바꿈한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과부와 옛보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오향거리 사람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X여사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인물들 감정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이성적 논리라기보다 X여사와 Q선생을 향한, 곧 외지에서 오향거리로 들어 온 타지인에 대한 경계이고 출중한 외모와 매력을 가진 이에 대한 질투와 선망의 감정이다.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부재하며, 개인의 사적체험에 의지하는 감정과 상상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우리 오향거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답이 엄청나게 복잡함 형태로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개성적인 우리 주민들 눈에는 누군가에게 멧돼지로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밧자루로 보이지요.(중략)

아마 이런 일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을 겁니다. 것처럼 특별하고 자극적이며 다채로워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끝없이 펼치는 것이고요. 각자의 시선 속에서 매우 빠르게 특정되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중략) 관건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주민들 머릿속에서 교묘하게 일어난 재현입니다.²²⁾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를 통해 재현된 양상은 사건의 본질과 멀어지고, 진실을 담보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로 확장된다. 작품이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모되는 양상에 매개된 이기심이며 이를 위해 타인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감시가 정교하게

22) 我們五香街，凡出現這一類問題，那答案總是層出不窮，煩雜得要命的。在我們這些極具個性的百姓的眼中，一個人看見的是也豬，另一個人看見的也許是一只鴿子，第三個人看見的則可能是一把掃帚。(……)提起開端，也許這種就沒有一種固定的開端，它是這樣的特殊，有刺激，有色彩，令人深思遐想不已。所以我們說它在各位眼中迅速地演化成一些特定的，與各位切身利益直結相關的鏡頭。(……)重要的不是事情本身怎麼樣，而是它在百姓頭腦中的巧妙再現。『五香街』，152-153쪽，『오향거리』，191-193쪽.

조직되어 있는 오향거리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이 막혀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X여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잡혀 남자를 잡아먹거나 홀리는 부정한 인물이 된다. 유명처럼 존재하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억측과 생각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된 자리를 거듭 확인하면서 배제의 대상이 된다. 관찰과 감시는 “불편한 부분을 떼어내 그것을 혐오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요긴한 정동”²³⁾의 구체적 양상이다. 작가는 이 속에 숨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며 이 질적인 것을 배제해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추구하는 본능과도 같은 인간의 이기심을 들추어낸다. 밀실 회의에서 오가는 말들은 X여사를 향한 비난을 목적으로 한다. 그녀를 향한 관찰과 감시는 공격적인 말이 행동으로 바뀐 것에 다름 아니고, 이로써 어떤 폭력은 말들 사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시선에 스며있는 것임을 작품은 보여준다.

우리 모두의 눈은 구조가 복잡한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았다. (X여사는 잔재주를 부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우수한 소양을 갖췄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략) 우리가 타고난 시선으로 그녀의 신체를 꿰뚫어보고 완벽하게 파악한 것이다. 결국 아무리 간교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연무를 피워대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처마 밑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문제가 비밀스럽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었다.²⁴⁾

어느 날 우리의 친애하는 과부가 그 순수하고 정의로운 눈빛으로 X여사의 사악한 눈빛을 쏘아본 끝에 그녀를 ‘물리친 것’이다.²⁵⁾

23) 강지희,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257-258쪽.

24) 我們每個人的眼睛都是一架結構複雜的顯微鏡與望遠鏡。(X女士的小把戲可以休矣。)正因爲具備了這種優秀的素質，所以我們才能“不動聲色”的呀!(……)我們天生的這種目光洞察了她的軀體，將她搞得一清二楚，她再有狡詐的本事，再放煙霧也無濟于事，我們安靜而又嚴肅地排坐在屋檐下，而同時，一切問題正在暗中“自行了結。”『五香街』，315-316쪽, 『오향거리』, 383-384쪽.

25) 有一天，我們親愛的寡婦用她那清純的，正義的目光與X女士淫邪的目光交鋒，一個回合就將她“擊敗了。”『五香街』，318쪽, 『오향거리』，386-387쪽.

관찰은 신체를 감시하는 작용을 한다. 오향거리 여자들이 X여사에게 보내는 눈빛은 힘의 불균형을 배태하고 이를 권력화하여 그녀에 대한 감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감시는 동화와 융화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이자 처벌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대상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집단의 안녕을 도모하고 집단 속으로 편입시켜 공동체의 (순응하는) 일원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앉아 있지만 그들은 X여사에 대한 관찰과 감시의 눈빛을 거두지 않는다. 게다가 과부는 '정의로운' 눈빛으로 X여사의 '사악한' 눈빛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그녀의 '정의로운'은 X여사를 체계를 위협하는 위협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발생한 자의적 해석의 산물이고, 오향거리 여자들의 눈빛 속에는 선망과 질투의 복합적인 감정이 매개되어있다. X여사의 외모와 언행은 오향거리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 때문에 그녀는 과부를 위시한 여자들의 공적(公敵)이 된다. 오랫동안 형성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X여사는 '탈어(奪語)'상태에 놓인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자의적 판단과 재단 속에 내몰린 X여사의 상황은 불순과 위협이라는 이중의 기표가 겹쳐졌을 때 누구라도 배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만난다.

4. 권력의 재편: 공간을 교란시키는 신체

많은 말과 주장이 오가는 오향거리의 개방성 한편에는 이질적 존재를 위협이라 간주하고 타인을 향한 감시가 작동하는 폐쇄성이 존재한다. 개방성은 다양함을 기반으로 생각과 감정의 제한을 풀어버린다는 점에서 오향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반경을 확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작품은 내가 가진 범주를 넘어서는 대상을 배척하는 행위 속에 담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목한다.²⁶⁾ 그리하여 X여사를 향한 응시와 감시는

이질적이라는 낙인의 효과와 함께 두려움을 기저에 두고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각자의 싸움과 다르지 않다.

큰 화재가 마을을 휩쓸고 간 뒤 겨우 살아남은 그들 남녀는 고향을 떠나 우리 도시로 들어오고, 사진 찍는 무리에 섞여 우리 도시 주민인 척 이곳에 정착한 것이다. 이런 가설을 거쳐 그들을 독약에 담겨졌던 두 개의 부족하고 병든 씨앗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났고 우리 거리에서 발생한 큰 사건의 역사적 근원도 확실해졌다.²⁷⁾

마을 사람들의 토의를 거쳐 X여사는 오향거리와 어떤 관계도 없는 병든 씨앗이 된다. 그녀는 오랫동안 질서를 지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돌연 이곳에 떨어져 순연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독소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담긴 X여사를 향한 분노는 선명하지만 근거는 자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외부자를 막아 “자기 구성과 통제, 유기적 전체성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²⁸⁾ 것으로 체제와 질서를 공고화한다. 공간의 양가성을 짚어내는 이 소설에서 공동체 속에 자신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선명하게 자리매김하는 X여사는 외부의 감시와 간섭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향거리를 혼돈과 환희로 뒤흔들어 버린다.

소설은 오향거리 내 사람들의 관계가 연결되고 넓어지는 지점이 X여사를 향한 응시와 감시의 범위와 겹쳐지고 있는 면면을 그려나간다. 이 속에서 X여사에 기인한 결정적 이유나 잘못을 찾기 어렵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극적인 각성과 도약의 순간은 일회성의 사건에 불과하고, 과부를 중심으로 한 여

26) 강지희, 앞의 책, 271쪽

27) 一場大火燒毀了村庄，僅存的這兩個男女離鄉背井來到了我們的城市，他們混在照相的隊伍中，偽裝成我市的居民，就在此地定居下來。經過這樣一假定，將他們看成兩粒殘缺有病的，在毒汁里浸泡過的種子的觀點就得以成立，發生在我們這條街上的大事的歷史根源也就一清二楚。『五香街』，162쪽，『오향거리』，204쪽.

28) 김지윤, 「『어글리즈』와 『형거게임』 시리즈에 나타난 신체정치와 공간성」, 『현대영미소설』 제26권 2호, 2019, 34쪽.

론물이는 여전하다. 작품 말미 집이 무너져서 칩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X여사가 집수리 신청서를 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그녀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향 거리의 습속을 학습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X여사는 장황하고 난해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신청서를 계속 제출하면서 결국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쓰지 않게 만들고는 오향거리를 나선다. 동질화를 거부하고 응시와 감시의 폭력을 벗어나는 X여사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의 풍경이 이질성에 대한 거부와 몰개성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오향거리 내 사람들이 벌이는 응시와 감시가 X여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에 대해 크게 동요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미경과 거울을 통해 사물을 보는 X여사는 자신의 눈은 집안의 가재도구만 겨우 볼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보는 자신은 실제의 ‘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울과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해줄게. 나는 항상 거울로 눈동자를 살펴봐. 밖에 나가서도 수시로 동그란 손거울을 들여다본다고.²⁹⁾

특히 고물상에서 거울 여러 개와 현미경을 사들인 뒤에는 아예 자신의 눈을 ‘은퇴’시키겠다고, 거울 속 물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³⁰⁾

거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라캉에 의하면 아기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가정”³¹⁾하면서 주체를 형성하는 ‘상상계’를 거친다. X여사가 거

29) 不瞞你說, 我時刻都用鏡子觀察它們, 哪怕是上街, 我也隨身帶着小圓鏡, 不時拿出來照一下。『五香街』, 8쪽, 『오향거리』, 17쪽.

30) 尤其是她從舊貨店買了那些鏡子和一架顯微鏡之後, 她干脆宣布自己的眼睛“退休”了, 也就是說除了鏡子里的東西, 她什麼也不看了。『五香街』, 19쪽, 『오향거리』, 29쪽.

울을 보는 행위는 그녀가 ‘상상계’를 벗어나지 못한 유아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피력한다기보다 거울 속 이미지를 “자신이 상상하고 공감하는 이상적인 동일체”³²⁾로 간주하면서 외부의 응시와 감시의 시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총체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자신을 보이게 만드는 거울과 현미경에 의지하게 되는 감각적 편향을 설명해준다. 시야의 명확성과 확장이 가능한 순간 속에서 X여사는 자신을 설명하고 타자를 인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잘 보이는 눈으로 X여사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감시했던 이들은 타인을 혐오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욕망이 결국에는 자신을 좁은 인식틀에 가두게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주체 형성의 원천인 거울은 작품 속에서 남성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X여사를 향한 오향거리 남성의 욕망은 과부의 말과 행동으로 전시되며 이는 오향거리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곧 여성 자신에 대한 상상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남성들의 욕망을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X여사의 거울은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하지 않으며³³⁾ 자신의 주체적 모습을 확정한다.

X여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내내 거론하는 것만으로 오향거리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는,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어떤 사회적 제약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³⁴⁾

공고화된 질서와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X여사는 오향거리의 질서 속에

31) 자크 라캉,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4, 16쪽.

32) 周愛華, 楊經建, 「凝視理論視角下殘雪《五香街》的身體政治」, 『湘潭大學學報』第44卷第4期, 2020年 7月, 155쪽.

33) “‘상상계’는 언어의 세계이자 질서의 세계로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키는 단계이다.”(라캉, 앞의 책, 16쪽)

34) 更何況X女士又是這麼一個直到今天提起仍然要讓五香街的群眾臉紅氣急的, 無視規範的女人, 她居然從來也沒承認過任何社會的約束。『五香街』, 231쪽, 『오향거리』, 286쪽.

굳이 안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의 내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거울을 보는 행위나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들, 나체 공연 등은 이를 대변한다. 보이는 현실 속에 숨어있는 억압과 제한은 더 기괴한 언행으로 오향거리 사람들이 놓인 자리를 보여준다. 과부의 억측 속에 감춰진 권력 이탈의 두려움과 마을 사람들의 반감 속에 숨은 질투와 선망의 감정을 피력하면서 X여사는 오향거리라는 다수의 공간을 교란시키는 존재가 된다. 성에 관한 강연 이후 벌어진 나체 공연은 X여사 자신이 관음증적인 시선에 의해 고착되기를 거부하는 한편 오향거리가 “낮선 신체가 근접함에 따라 방향 감각을 잃고 다른 리듬을 만들어 내면서 범주화되고 고착되는 방식에 도전”³⁵⁾받고 있는 상황임을 일깨운다. X여사의 성 강연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진행된 과부의 강연은 두 사람 사이의 상반된 의견차를 보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과부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X여사의 나체 공연은 상황을 전혀 다른 지점으로 이끌고 간다. 여기에 과부 역시 동참하게 되면서 마을 전체로 확대된다. 금기와 억압을 타파하고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란의 흥분 속에서 공연을 전제하는 연기자과 관객의 경계는 사라진다.

날이 밝자마자 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큰길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한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갔다. 몸이 불편해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거리로 몰려나왔다. (중략) 그렇게 공연하는 한편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모두에게 소리쳤다. “하! 하! 하하!!” 그 함성을 듣자 머리가 트인 듯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도 모르게 여자들을 따라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일단 흔들자 옷을 벗고 싶어지고, 참으려야 참을 수 없어서 벗어던졌다.³⁶⁾

35) 너털 퓨워 지음, 김미덕 옮김, 『공간침입자』, 현실문화, 2017, 77쪽.

36) 天一亮, 這兩人就一絲不掛地出現在大街的兩頭。一個從東往西走, 一個從西往東走。除了癱在床上不能動的, 所有的人都擁到街上來了。開始大家尖聲銳叫着, 膽怯不前地遠遠觀望着這“新潮”遊戲, 一下子還沒悟到其中的含意。(……)一邊表演還一邊將雙手做成喇叭狀向眾人吆喝: “哈! 哈! 哈哈!”這一喊, 衆人的腦瓜開了竅似的, 一個個身不由己, 跟隨她們扭動起來。一扭,

작품 속에서 공연은 관객이 진입할 수 없는 무대, 배우와 관객이라는 분리된 역할로 오향거리를 은유한다. 각각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분명해서 다른 자리를 넘볼 수 없다. 여기서 X여사는 무단으로 오향거리에 진입한 ‘공간 침입자’가 된다. “어떤 집단 혹은 개인에게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폐쇄적 공간은 그 공간 내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특권과 위계를 부여한다.”³⁷⁾ 오향거리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X여사를 응시하고 감시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녀는 ‘배우’가 되어 그들의 주시를 받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나체공연이 펼쳐짐으로써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역할은 무너진다. 이는 X여사가 가진 이질적이고 돌출적인 모습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녀로 인해 오향거리 내 대립적인 관계가 해체되고 “규범을 모방하고 그 규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신체의 존재를 허락”³⁸⁾했던 오향거리를 교란시키고 무너뜨린다는 뜻에 가깝다.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기 행위에 관객이 동참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적인 변화는 공고하게 결집된 내부의 결속이 와해되는 순간과 겹친다. 공간이 가진 배타성이 무너지면서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금기와 억압 역시 사라진다. 연기자와 관객이라는 보이는 자와 보는 자의 대립적 관계를 타파하고 관찰과 감시의 경직된 시선도 깨뜨리면서 X여사로 대변되는 이질적 존재에 대한 경계 역시 무너진다.

그러나 경계가 깨지고 예외적 공간이 된 오향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색까지 하면서 이른바 ‘도덕수양’의 관점을 거론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자책감과 도덕적 비난에 시달릴까 두려워하는 이들은 난장을 통한 해방감이 일시적인 일탈로 치부되는 오향거리를 비춘다. 공간이 가진 공고한 경계

就想脫衣, 忍也不刃住, 干脆脫吧。『五香街』, 108쪽, 『오향거리』, 137-138쪽.

37) 김지윤, 앞의 논문, 34쪽.

38) 너털 퓨워, 앞의 책, 204쪽.

는 X여사를 부적절한 존재라 낙인찍는다. 그녀는 여전히 감시와 교화와 동화의 대상이고 Q선생과의 일은 마을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들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번져나간다. 주목할 것은 X여사의 태도이다. 그녀는 자신을 대상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향거리 대로에서 내일로 나아”³⁹⁾간다. 이로써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유를 멈추지도 않은 채, 자기의지로 공간에 들어가 다른 리듬을 만들고 균열을 통해 예외적 공간을 구성하려는 X여사의 시도는 계속될 것임을 피력한다.

5. 나오는 글

오향거리는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생각의 개진과 카니발의 환락이 일어나는 개방적인 곳이자, X여사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벌어지는 폐쇄적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생경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생득적 거부가 진행되는 한편 이질적인 존재가 풍기는 강한 유혹에 굴복하기도 한다. 한 공간이 가진 개방성과 폐쇄성의 다른 모습은 한 가지 의미로만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의 다면성을 포착한다.

작품은 X여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며 그녀를 향한 오향거리 사람들의 추측에도 확언을 하지 않는다. 정답이 없고 모호한 상황은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이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들의 말은 X여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X여사가 누구이고 그녀가 왜 Q선생과 불륜을 저질렀는가는 내핵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X여사의 실체와 불륜을 추적해가는 사람들의 설왕설래하는 상황 그 자체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난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말이 오향거리 전체에 고루 퍼지는 상황을 포착해 서로 다른 진술들이 만들어내는 충돌과 향연의 모순적 순간을 드러낸다.

39) 『오향거리』 ‘본격적인 이야기’ 11장의 제목

한편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기에 X여사는 이질적 존재가 되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모두의 적으로 인식된다. 한 공간이 가지는 배타적 경계는 특정한 것에 대한 선택 또는 거부를 의미한다.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공동체가 특정하며 선별의 과정을 거쳐 안과 밖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의 판단이 생겨난다. 소설에서 이 과정은 ‘점진적 동화, 완벽한 융화’라는 단어로 같음된다. 이를 뒤집으면 경계 밖의 존재는 동화와 융화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거부하는 X여사는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수하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순수함’과 ‘균질함’의 느슨한 밀도와 연약함을 역으로 드러낸다. 중심으로 향하는 공간의 방향을 바꾸고 주변의 다채로움을 확인시키면서 그녀는 공간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X여사로 상징되는 이질적 존재가 중심을 교란시키는 신체로 등장하면서 공고화된 사유와 고착된 관습에 균열을 가져오고, 권력 생산 방식과 공간을 재편하는 파괴적 역능을 확인하는 순간이 마련된다.

관찰과 감시의 시선에 관한 서사 끝에는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고 세상을 똑바로 보기 위해 자신의 고유함에 집중하는 X여사와 만난다. 그리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호기심을 서술하는 오향거리 사람들의 말에 탐닉하고 있는 우리들을 본다. 소설 전면에 부각된 한 인간의 일상에 대한 관찰에는 질투와 선망의 감정이 추동하는 욕망이 스며있고 이와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 과도 겹친다.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것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제하며 대체하는 인간의 정동이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응시하고 관찰하는 관음벽이다. 작품의 주인공 X여사가 은유하는 X는 ‘미지수’이기에 그 자리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올 수 있다. 때문에 오향거리 사람들은 X여사와 ‘다른 사람’이 아니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일 수 없다. 이는 다른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와 상상력과 호기심을 지닌 인간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읽힌다.

參考文獻

- 강지희,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 너털 푸어 지음, 김미덕 옮김, 『공간 침입자』, 현실문화, 2017.
- 자크 라캉, 권택영, 이미선, 민승기 옮김,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 찬쥬 지음, 문현선 옮김, 『오향거리』, 문학동네, 2023.
- 殘雪, 『五香街』, 湖南: 湖南文藝出版社, 2017.
- 김경남, 「찬쥬(殘雪)소설론」, 『중국연구』 제33호, 2004.
- 김지윤, 「『어글리즈』와 『헝거게임』 시리즈에 나타난 신체정치와 공간성」, 『현대영미소설』 제26권 2호, 2019.
- 박규택,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한국민족문화』 33호, 2009.
- 이은하, 「눈먼 자들의 도시의 서사구조와 도시 공간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1호, 2021.
- 常立霓, 「“看-被看”模式的消解-從「復仇」到『突圍表演』」, 『湖北大學學報』, 2005年 第32卷 第1期.
- 陳茜, 「性別文化視閥下《五香街》的空間意象」, 『三明學院學報』, 2018年 10月 第35卷 第5期.
- 栗丹, 「對話化的小說人物—解讀殘雪的長篇小說《五香街》」, 『東北財經大學學報』, 2007年 第4期.
- 周愛華, 楊經建, 「凝視理論視角下殘雪《五香街》的身體政治」, 『湘潭大學學報』 第44卷 第4期, 2020年 7月.

Abstract

The ambivalence of the space that appeared in Chan Xue(殘雪)'s "Five Spice Street(五香街)"

Kim, Bong Yeon

In literary works, space is not only an element that constitutes a story, but also a framework that reveals the author's thoughts while interacting with characters and events. Conflicts and conflicts based on interests between characters arise and a series of processes to resolve them are included. Chanshe's first full-length novel, "Five spice street" is a work that stands out for the aspect of characters and spaces. The face is an open space where various thoughts and carnival entertainment take place, but it is also a closed space where observations and surveillance of Mrs. X take place. While the innate rejection of unfamiliar and heterogeneous things progresses, it also appears as an ambivalent character that gives in to the strong temptation of heterogeneous beings. The multifacetedness of a space is captured by the other aspects of openness and closure that are immeasurable in one sense.

Key words : canxue, Five Spice Street, space, Openness, closure, ambivalence

투 고 일 : 2024. 4. 10. / 심 사 일 : 2024. 4. 15.~ 2024. 5. 15. / 게재확정일 : 2024. 5. 20.

